

甫吉島 尹善道 遺蹟에 관한 建築的 考察

김 영 필

(전남문화재연구원 연구팀장, 공학박사)

주제어 : 윤선도, 보길도, 곡수당, 낙서재, 건물지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보길도는 1637년 윤선도가 부용동에 처음 들어와 이후 1671년 세상을 떠날 때 까지 7회에 걸쳐 왕래하면서 그의 생애 중 13년을 보낸 곳이다. 행정구역상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에 위치하고 현재 명승 제34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지금까지 윤선도에 대한 연구는 실로 방대하며 이중 그가 남긴 보길도 유적과 함께 다룬 연구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문헌기록과 자연환경 그리고 그가 남긴 시를 대상으로 윤선도의 자연관과 조영관을 조선중기라는 시대상황 속에서 파악하고 아울러 유적의 세부적 특징을 찾고자 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보길도 윤선도 유적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발굴조사¹⁾가 수행되었고 많은 건물

지와 시설물 등 관련 유구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 유구들은 기존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문헌기록과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동안의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유구와 문헌기록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건축적 특징을 파악코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유적의 성격과 특징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유적의 복원을 위한 자료로서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2.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유구와 문헌기록과 비교하여 유구의 성격과 유적의 건축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

순번	대상지	조사기관	조사기간
1	세연정, 동천석실	국립문화재연구소	1990.10.25~1990.11.5
2	곡수당, 동천석실 연못지	(재)전남문화재연구원	2002.12.17~2003.3.16
3	서재 및 낙서재 일원		2004.9.10~2005.3.19
4	서재/낙서재/동천석실 주변		2006.11.16~2007.4.28

1) 그동안 수행된 발굴조사는 표와 같으며 필자는 서재, 낙서재, 동천석실 주변부의 조사(표의 3, 4에 해당)에 조사원으로 참여하여 건축물과 관련된 다수의 유구를 확인하였다.

8 논문

한 연구의 방법은 크게 문헌고찰과 현장조사 그리고 분석으로 대별된다.

문헌고찰에서는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연구의 동향을 살핌과 아울러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형성하였다. 또한 보길도와 관련된 문헌기록²⁾을 살펴 윤선도 기거 당시의 모습을 파악하고 한편으로 발굴보고서를 토대로 유구의 건축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현장조사에서는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조선중기의 별서건축물을 조사하여 건축적 특징과 제 속성을 기록하였다.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분석의 틀에 맞추어 전산화 하였고 한편 윤선도 유적은 개인적인 별서건축임으로 유적의 조성배경과 성격파악의 일환으로 그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에서는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곡수당과 낙서재 그리고 동천석실 일원의 건물지들과 문헌기록을 비교하여 입지 및 좌향, 배치 등을 살펴보고 건축적 특징을 공간구성 위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³⁾

2) 윤선도 유적과 관련이 있는 문헌은 『甬吉島識』, 『孤山年譜』, 『芙蓉洞八景』이 있다. 『보길도지』는 윤선도의 5대손 윤위(尹偉:1725~1759)가 1748년 보길도를 돌아보고 기록한 것이고, 『고산연보』는 1798년(정조15)에 왕명으로 전라감사 徐有隣이 간행한 것을 다시 1798년에 전라감사 徐鼎修가 윤선도의 분가에 소장된 목판본을 대본으로 하여 외탈(脫謄)된 것을 철삭하여 고산집(孤山集) 15부를 재차 간행한 것이다. 『부용동팔경』은 윤선도의 셋째부인 薛氏(학관의 모친)의 집에 전해져 내려온 족보 속에 끼여 있었던 작품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것은 아래와 같다.

① 『보길도지』: 1985년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간한 『보길도 윤고산 유적』에 실린 원문과 번역문
 ② 『고산연보』: 목판인쇄본과 이형태·이상원·이성호·박종우, 『국역 고산유고』 1판, 소명출판, 2004.
 ③ 『부용동팔경』: 김동열·천득염, 『보길도 洞天石室 영역의 복원적 고찰』, 『건축역사연구』 59호 제17권 4호, 2008. 에서 재인용

3) 본 연구는 필자가 발굴결과를 토대로 이미 기고한 바 있는 다음의 보고서와 간행물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며 특히 3차 보고서의 본문내용과 고찰 그리고 부록편에 수록된 논고를 요약 정리한 것임으로 더욱 자세한 내용은 3차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① 김영필, 『완도 보길도 윤선도 유적의 공간구성』

2. 이론고찰

2-1. 선행연구

고산 윤선도의 시문학에 관한 연구는 실로 방대하다. 또한 시문학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보길도 유적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

[표 1] 보길도 윤선도 유적에 대한 선행연구

순번	연구자	연구주제	년도	비고
1	유우선	보길도의 고산유적과 어부사시사의 배경시론	1977	호남문화연구
2	정동오	고산 윤선도의 별서생활과 부용동 원림의 지원에 대한 고찰	1987	고산유고
3	최은창 홍광균	보길도 부용동 세연정정원의 공간구성 원리에 관한 연구	1994	한국조경학회지
4	이안진	고산윤선도의 조경관과 정원의 조성특성에 관한 연구	1995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5	문영오	고산문학의 풍수사상 현장화 양태 고구	1998	국어국문학
6	신종일	보길도 별서건축을 경영한 고산 윤선도의 건축관에 관한 연구	2004	건축역사연구
7	김영필	보길도 윤선도유적 복원을 위한 기초적 연구	2006	전남문화재
8	김동열 천득염	보길도 동천석실 영역의 복원적 고찰	2008	건축역사연구

보길도유적과 관련된 연구는 1970년대에 나타났으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관련분야는 건축학, 조경학이 주류를 이루는데 조경학적 입장에서는 지당, 수목 등 조경시설물을 살펴 조경기법을 찾고자 하는 것과 또는 그가 남긴 시와 자연경관을 비교하여 배경을

① 『완도 보길도 윤선도유적Ⅱ』, 전남문화재단연구원, 2006.

② 김영필, 『보길도 윤선도유적 복원을 위한 기초적 연구』, 『全南文化財』, 전라남도, 2006.

③ 김영필, 『완도 보길도 윤선도유적Ⅲ』, 『보길도 윤선도 유적의 건축적 고찰』, 전남문화재단연구원,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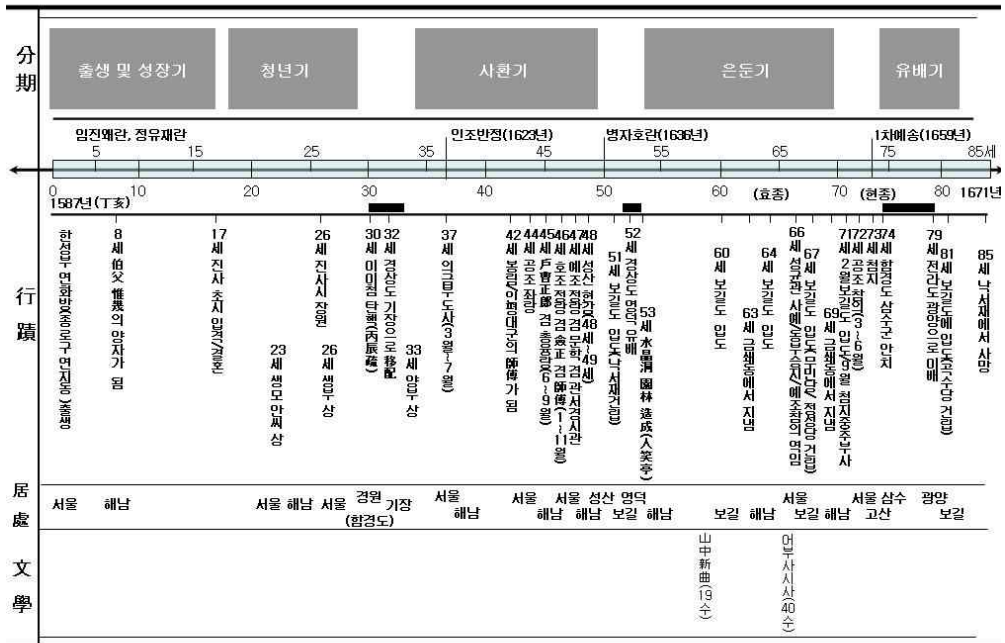
찾고자했던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며 건축학에서는 현존하는 유구와 문헌 등을 대상으로 건축적 특징을 찾고 건축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별히 유적의 입지특성을 풍수적으로 해석한 연구도 있다.

2-2. 윤선도의 생애

윤선도는 본관이 海南이며 字는 “約而” 號는 “孤山” 또는 “海翁”으로 한성부 연화방 곧 지역의 종로구 연지동에서 출생하였다.⁴⁾ 해남 윤씨는 고조인 어초은 효정이 지금의 해남 중택에 자리를 잡으면서 명문가로 세를 이어왔다. 윤선도는 16대손으로 원래는 종손이 아니었지만 伯父인 尹惟幾가 손이 없어 그가 8세 때에 양자로 들어가게 되어 성장기의 대부분을 해남에서 지내게 된다. 이후 그의 거처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관직생활을 하고 봉당이라는 정치구조 속에서 유배형을 받아 함경도, 경

상도 등 외지로 돌았고 관직에 나가지 않았을 때는 해남과 보길도에 주로 기거하였다.

그의 일생을 행적에 따라 나누어 보면 <그림 1> 과 같이 출생 및 성장기, 청년기, 사환기, 은둔기, 유배기로 크게 5분기로 설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출생 및 성장기는 출생에서부터 17세 진사 초시에 합격하기 전까지 이다. 그의 유년시절은 조선시대를 통틀어 최대의 전란인 임진왜란(1592, 6세)과 정유재란(1597, 10세)을 맞았으며 이 시기 7년 동안 민생과 국도가 유린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해남에서 성장기를 보낸 탓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란의 영향을 덜 받았으며 그래서인지 정유재란이 일어난 때에도 山寺에 들어가 독서를 할 수 있었던 여유가 있었던 것 같다. 다음 청년기는 18세부터 30세까지이며 진사 초시를 비롯해 진사시에 장원을 하는 등 출사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그림 1> 윤선도 주요 연보

10 논문

다음 사환기는 인조반정(1627년) 일어나는 그의 나이 30세부터 병자호란(1636년)을 겪게 되는 50세까지이다. 그는 30세에 이이첨을 탄핵한 병진년(1616년) 상소 때문에 경상도 기장으로 유배를 가지지만 이 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⁵⁾ 유배 이후 출사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관직은 정랑, 좌랑, 별제 등 5~6품 정도였으며 특별히 42세에 훗날 효종인 봉림대군과 인평대군의 사부가 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위직에 오르지 못했다. 물론 당시의 조정의 주도세력은 인조반정을 이끈 서인세력이어서 남인인 그는 비주류로 사환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다음 은둔기는 51세 부터 70세까지로 이때 병자호란이후부터 효종대 까지 이다. 효종 3년(1652년) 그의 나이 66세에 동부승지와 예조참의에 재수되었으나 그 해에 탄핵과 삭탈관직을 맛보게 되며 해남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수정동, 금쇄동, 부용동 원림 등을 조성하였으며 산중신곡과 어부사시사 등을 남겼다.

이후 71세 때 재차 벼슬길에 오르게 되지만 예송논쟁으로 함경도 삼수에 안치되고 약 7년 동안의 유배기를 지낸 후 보길도에서 4년을 더 지낸 1671년 85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결국 윤선도는 격동의 시기에 살면서 정계에 머물기는 하였으나 비주류에 속해 한직과 은둔, 유배로 점철된 질곡이 많은 일생을 보냈다. 그래서 윤선도의 문학작품들은 유배지의 한적한 자연속에 묻힌 은자의 노래이며 전형적인 士大夫이면서도 현실 도피적이며 패자의 좌절감에 빠져있다. 작품의 소재는 바위와 산 또는 정원생활이며 작품 사상은 도교적인 체취가 짙은 자연 물입과 緘念의인 취향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⁶⁾

4) 孤山先生年報 券1

5) 광해군일기 110권 8년(1616) 12월 21일(정사).

건축역사연구 제19권 1호 통권68호 2010년 2월

2-3. 별서정원의 개념

보길도 윤선도 유적은 기능상 別墅建築에 해당된다. 별서의 사전적 정의는 농장이나 들이 있는 부근에 한적하게 따로 지은 집으로서 유사어로 別莊, 別邸, 別第, 別業 등이 있고, 조경학 분야에서도 “체택에서 떨어진 인접한 경승지나 전원지에 은둔과 은일 또는 순수하게 자연과의 관계를 즐기기 위해 조성하여 놓은 제2의 주택”이라고 하였다.⁷⁾ 한편 건축분야에서는 精舍기능의 누정⁸⁾, 정원으로서의 별저⁹⁾, 경승지에 세운 별장¹⁰⁾ 등으로 보고 있다.

즉 별서는 살림집과 달리 별도로 건립되는 기거처로서 농장 경영, 은둔과 은일, 휴양, 자연경관의 감상, 강학, 자기수양 등의 용도를 갖는 복합적 기능의 건축유형이며, 살림집에 인접한 경우도 있으나 주로 경승지와 관련된 입지를 보이고 있어 독특한 건축적 성격을 갖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별서건축의 인공적 구성은 크게 건조물과 조경요소로 나눌 수 있다. 건조물은 기능적인 분류에 의해 거주를 위한 건축물과 휴양을 위한 건축물로 분류된다. 건축물의 구성은 다양한데 1~2동으로 이루어진 예도 많고 담양 소쇄원처럼 일곽 내에 여러 동의 건축물로 구성된 사례도 있다. 건축물의 규모는 명칭에서 일부 엿볼 수 있는 것으로 堂, 齋, 軒 등의 명칭으로 주요 건축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堂은 건축물 자체를 의미하고 軒·齋는 당에 부속된 일부 실을 나타내기도 한다.¹¹⁾

6) 노종두 1999, 앞의 글.

7) 이제근, 『조선시대 별서정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2.

8)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 문예출판사, 1992.

9)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10) 한국전통건축연구회, 『한국건축사』, 도서출판 서우, 2002.

11) 이창업·강영환, 「고려시대 별서건축의 조성수법에

[표 2] 전남지방 별서건축의 세부 특징

명칭	조성연대	위치	입지	건물명	좌향	입면규모 (기둥 간격)		홀수 (위치)	지붕	구조				퇴	연못
						정면	측면			가구	기초	기둥	공포		
소쇄원	1520 년경	담양군 남면	산기슭	평풍각	남동	7자+7자+7자	3.5자+7자 +3.5자	1(중앙)	팔각	5량	덤병	원	소로 수장	4면퇴	
				제월당	남동	8자+8자+8자	8자	1(좌측)	팔각	3량	덤병	원	장여 수장		
				대봉대		1칸	1칸		초가						
임대정	1500 (1862)	화순군 남면	산기슭	임대정	북서	8자+8자+8자	8자+8자	1(중앙)	팔각	1고주5 량	덤병	원	소로 수장		2개
명옥 현원림	1630	담양군 고서면	산기슭	명옥헌	북서	8자+10자 +8자	9자+9자	1(중앙)	팔각	5량	정평	원	장여 수장	4면퇴	2개
다산 초당	순조	강진군 도암면	산중턱	다산초당	남	3.5자+8자 +9자+8자 +3.5자	3.5자+9자 +3.5자	2(좌,우)	팔각	2고주5 량	덤병	원	소로 수장	전,좌, 우	
				동암	남서	8자+8자+8자	4자+8자	2(좌,우)	맞배	1고주5 량	덤병	방	장여 수장	전	
				서암	남남동	8자+8자+8자	4자+8자	3	맞배	1고주5 량	덤병	방	장여 수장	전	1개
식영정	1560	담양군 남면	산기슭	식영정	남동	8자+8자	8자+8자	1(우측)	팔각	5량	덤병	방	장여 수장		
				서하당	북동	8자+8자+8자	8자+8자	1(우측)	팔각	5량	덤병	원	장여 수장		
				부용당	남동	8자+8자+8자	8자+8자	1(우측)	팔각	5량	정평	원	익공		
학포당	1521	화순군 이양면	산기슭	학포당	남남동	5자+8자+5자	5자+9자 +5자	1(중앙)	팔각	2고주5 량	덤병	원+방	장여 수장	전,좌, 우	
독수 정원림		담양군 남면	산기슭	독수정	북북동	5자+9자+5자	5자+9자 +5자	1(중앙)	팔각	5량	정평	원+방	소로 수장(5)	전,좌, 우	
환벽당	1500 년대	광주광역시 북구	산기슭	환벽당		8.5자+8.5자 +8.5자	4자+8자	1(중앙)	팔각	5량	덤병	원+방	소로 수장(4)	전,우	

조경은 주변 경관이 수려할 경우 증감이 있을 수 있지만 건조물은 필수적이고 규모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다.

참고로 현재 알려진 전남지역 별서건축의 제 특징은 <표 2>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조성연대가 조선시대 중·후기에 해당되고 건축물들은 후기에 건립된 것이 많아 별서의 입지와 건축물을 비롯한 시설물과 자연요소가 어우러지는 배치상의 특징들은 파악이 가능하겠으나 건립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사례가 극히 드물고 관련 문헌이나 기사도 제한적인 내용이어서 건축물의 세부적인 결구수법 등을 알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윤선도유적의 건축적 특징

3-1.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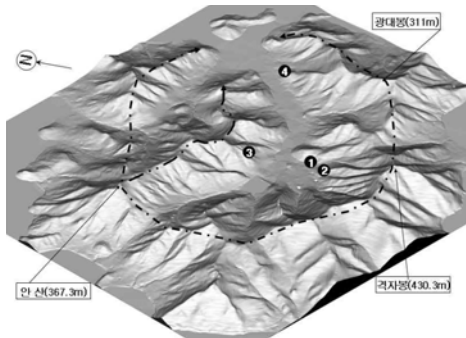
보길도는 윤선도가 入島하기 전에는 무인도였으나 병자호란 때 윤선도가 제주도로 향하던 중 이곳에 들러 자연환경을 둘러보고 빼어난 절경에 감탄하였고 자신의 별서를 자연과 관계를 맺으며 조영을 하게 된다.¹²⁾

기록에 의하면 윤선도는 별서를 조성하기 위해 격자봉에 올라 풍수적인 좌향과 지형의 고저를 살폈다고 한다.¹³⁾ 실제로 보길도에는 그가 의도한 유기적 공간구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2) 『고산유고』 연보, 丁丑年(1637) 泊于甬吉島之黃原浦, 望見峯巒秀麗, 洞整開豁, 眞氣溢目, 左右溪澗縈帶合流, 公曰 此可以居矣

13) 이정섭 역, 『甬吉島識』, 문화재관리국, 1985

관련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 11호9(통권 193호), 2004.



<그림 2> 보길도 지형 및 유적 위치도(①:곡수당 일원, ②: 낙서재일원, ③동천석실 일원, ④: 세연정 일원)

윤선도 유적이 위치한 보길도는 지형이 <그림 2> 와 같이 형성되어 있는데 타원형에 가까운 섬의 가장자리를 해발 300~430m의 산들이 감싸고 있고 안쪽에는 또 하나의 산줄기가 통과한다. 섬 주변은 굴곡이 많은 리아스식 지형인 반면 안쪽은 외부기후의 영향을 비

동쪽으로 흐르게 된다. 섬 내부로의 진입은 북동쪽으로 굽어져 형성된 곡간부가 주요동선으로 이용된다.

3-2. 곡수당 일원

곡수당은 보길도지에 학관이 건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연보에는 윤선도가 81세 때 건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곳에는 3동의 건축물이 있었다고 한다.



<그림 3> 곡수당 일원 전경

[표 3] 기록에 묘사된 곡수당 일원의 건축물

출처	건물명	원문	내용	비고
고산 연보	곡수당	· 八十二歲 無憫堂東溪上築小堂命曰曲水	· 82세(1668년) 무민당의 동쪽 시내 위쪽에 작은 집을 짓고 曲水라 함	
보길도지	곡수당	· 一間四退南欄曰取適西曰益清... · 堂後爲平臺之三面爲牆左右有小門... · 亭下十步...爲日三橋.../...橋轉數步爲有意橋... /... 橫跨虹橋於益清軒.../... · 橫跨虹橋於益清軒下岸上爲蓮池.../...取適之下有意之上鑿池.. /...	· 규모- 1칸, 4면 뒷간 · 주변- 뒤쪽으로 평대, 3면에 담장과 좌우출입문이 있다. · 주변- 다리가 있다.(일삼교, 홍교, 유의교) · 주변- 연못이 있다.(상연지, 하연지)	조정
	석정	· 蓮池東築小臺上築石亭...	· 연지(하연지)의 동쪽에 소대를 쌓고 그 위로 석정을 축조	
	서재	· 曲水南兩壑之中舊有書齋...	· 곡수 남쪽 두 골짜기 안에 옛날에 서재가 있었다.	

교적 덜 받는 분지 지형을 갖는다. 윤선도가 “芙蓉洞”이라 명명한 것이 보길도의 산세가 마치 물에 떠 있는 연꽃처럼 생겼기 때문이다.¹⁴⁾ 한편 분지의 내부에는 곡간부마다 소규모 계곡이 형성되며 이들은 중심으로 모여 북

기록과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표 3>, <표 4> 로 각각 정리해 볼 수 있다. 발굴 조사결과 기록에서 언급된 건물과 다리, 연못 등이 모두 확인되었으나 석정만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기록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건물지 4개와 수로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4개의 건물지는 <그림 4> 에서 10~13번인

14) “芙蓉”은 풍수지리에서 볼 때 땅모양을 꽃에 비유한 것으로 大明堂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최창조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민음사, p.52, 1992.)

14 논문

수로는 낙서재 일원의 공간구성에서도 후술 하겠지만 낙서재 일원과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곡수당을 축조하던 당시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기록에 없는 것은 부속 용도의 건축물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건물지 11~13번까지를 제외하면 곡수당 일원의 중심영역은 1~8번 유구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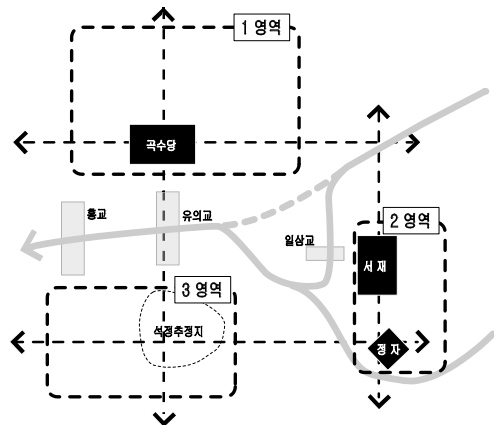
중심영역의 구조는 냇물이라는 자연요소를 기준으로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뉘는데 곡수당과 상연지가 이루는 1영역, 서재와 정자, 정자 앞의 켠가 이루는 2영역 그리고 석정과 하연지가 이루는 3영역이다.

건축물은 <그림 5> 에서와 같이 곡수당과 서재는 상호간에 직교하는 배치형태를 보이고 있어 건물지만 보았을 때는 정연한 모습이다.

그러나 서재의 남동쪽에 있는 정자는 축이 다르다. 한편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석정의 위치는 그림에서와 같이 하연지의 남동쪽 주변으로 추정된다. 이유는 정자의 위치로 냇물과 하연지를 쉽게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우선이지만 냇물 가까이에 대지가 협소하며 또한 유의교와 인접하게 된다. 그 외 지역은 하연지에서는 가깝지만 냇물에서 멀어지므로 전체적인 배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생각하기 어렵다.

다리는 3개인데 무지개다리(虹橋, 有薏橋), 유의교(有薏橋), 일삼교(日三橋)이다. 전체면적과 조성된 건축물에 비해 많은 숫자이다. 특히 곡수당과 하연지가 연결되는 다리는 2개인데 물을 건너기 위한 기능적 측면 외에 장식성과 조망 지점 확보 등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며 서재와 하연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없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동선을 길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석축은 건물지와 계곡이 접하는 부분에 모두 사용되었다. 석축은 기술과 구조적인 사항만 있을 뿐 자체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이다. 오히려 곡수당 일원에 구조적 안정성을 피하고자 했다면 건축물을 냇물에서 보다 떨어져 축조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석축의 사용은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은 안정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냇물의 가장자리는 모두 석축으로 처리하고 건축물을 냇물에 인접하게 배치하였다. 이 중 석축의 높이는 1영역인 곡수당이 가장 높고 2영역, 3영역이 순차적으로 낮아진다.



<그림 5> 곡수당 일원의 공간구조

다음으로 연지의 배치를 들 수 있는데 1영역과 3영역에는 각각 상, 하연지가 있고 2영역에도 보 시설을 둔 것은 각 영역별로 조망요소인 물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작은 계단을 만들어 꽃과 괴석을 심었으며, 죽림과 소나무, 단풍나무, 산다나무(동백) 등 여러 수목들을 심었다. 이러한 조성수법은 담양 소재원과 유사하다는 견해¹⁵⁾도 있으며 실제로 입지, 계류를 이용한 건축물의 배치, 조경요소, 수경요소에서 유사하다. 그러

15) 신종일, 「보길도 별서건축을 경영한 고산 윤선도의 건축관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3권 3호 통권 39호, p.30, 2004

나 건축물이 이루는 축의 설정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소쇄원이 광풍각, 제월당, 방지의 축이 서로 달라 방사형 축에 가까운 반면 곡수당은 정연한 직교축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곡수당 일원에 나타난 영역의 구성, 건축물간 축의 설정과 넷물에 근접한 개별건축물의 배치수법, 적극적인 조망요소로써 연지와와의 관계 등은 곡수당 일원에 내재된 조영의 맥락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계곡에서 흐르는 넷물은 근원적인 자연요소로써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3개의 영역이 형성되고 각 영역별로 건물지를 비롯한 인공요소를 추가하여 독립적인 각각의

유적의 핵심적인 공간이다. 낙서재 일원에 대한 문헌기록과 발굴조사결과를 정리해 보면 각각 <표 5>, <표 6>, <그림 7> 과 같다.

『보길도지』에 의하면 낙서재 일원의 건축물은 4동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며 택호는 낙서재, 무민당, 동와, 서와이다. 먼저 낙서재는 소은병 [바위] 아래에 있고 앞쪽으로는 돌이 있으며 규모는 3칸에 4면 되었다가 후대에 학관의 아들 이관이 5량으로 증축했다고 한다. 다음 무민당(無悶堂)은 낙서재의 남쪽으로 중앙에 실(室)을 들이고 사방에 퇴를 달았다고 하였다.

동와(東窩), 서와(西窩)는 낙서재와 무민당

[표 5] 기록에 묘사된 낙서재일원의 건축물

출처	건 물 명	원 문	내 용	비 고
보길도지	무민당 (無悶堂)	· 構外寢於樂書之南 · 一間四退間甚大	· 낙서재의 남쪽에 외침을 지었다. · 1칸이며 4면이 되었고 간이 넓고 크다.	板戶설치 藻井설치
	동와·서와 (東窩·西窩)	· 構東西窩於二寢之間 · 各一間四面退	· 낙서재와 무민당 사이에 동서와를 지었다. · 각 1칸이며 4면이 되었다.	
	낙서재 (樂書齋)	· 三間而四退間架甚大... · 在小隱屏下 · 隱屏直壓後檐左右 欄邊怪石列立庭前正中有石如龜形....	· 낙서재는 3칸이며 4면퇴간이고... · 소은병아래에 있었다. · 은병은 뒤쪽처마를 바로 누르고 난간주변에는 괴석이 열지어 있으며 정원 앞 중앙에 거북이 모양의 돌이 있다..	板戶설치
고산연보	무민당	· 樂書齋前 龜巖下 築一堂 命曰無悶 鑿池種蓮以爲宴息....	· 67세 낙서재 앞 龜巖 아래에 무민당을 짓고 못을 파고 연을 심었으며 잔치를 열고 쉬었다.	

군을 이루고 또한 각 영역들은 높이에 따라 위계가 설정된다. 영역은 구성요소들의 직교하는 배치축선으로 다시 통합되며 홍교(무지개다리), 유의교, 일삼교를 통해 각 영역간 연결을 도모하고 의도적으로 길게 구성시킨 동선은 물을 모태로 만들어진 계곡주변과 상·하연지를 두루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3. 낙서재 일원

낙서재는 윤선도가 기거하던 곳으로 보길도

사이에 있었고 평면구성은 중앙에 실을 두고 사방에 퇴를 둔 형식이다. 이상은 『보길도지』에 기록된 것이다.

『고산연보』에는 “낙서재 앞 龜巖 아래에 무민당을 짓고 못을 파고 연을 심었으며 잔치를 열고 쉬었다.” 는 기록이 있다.

두 기록에서 주목되는 점은 무민당의 위치인데 『보길도지』에서는 낙서재의 남쪽이라 했으나 『고산연보』에는 낙서재의 앞 귀암

[표 6]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낙서재 일원 건물지 및 기타유구

순번	유구명	잔존유구	규모	용도(추정)	비고
1	건물지①	기단, 초석, 고막이 석렬, 섬돌, 담장	3×1칸, 전퇴	제각	후대 건물지
2	건물지②	기단, 초석, 축대	1×1칸, 전퇴	제각의 부속건축물	후대 건물지
3	건물지③	아궁이 시설, 축대, 석렬	·	미상	·
4	건물지④	적심, 원형석축, 담장	·	미상	·
5	건물지⑤	초석, 적심석, 고막이 석렬	3×2칸	수장시설	·
6	건물지⑥	초석, 고막이 석렬	·	미상	·
7	건물지⑦	석렬	·	미상	·
8	건물지⑧	적심, 연도, 기단석렬, 증축기단석렬, 증축축대, 와적시설	6×1칸	미상	증축건물지
9	건물지⑨	연도부	·	미상	·
10	건물지⑩	초석, 아궁이, 벽체, 군집된 판석, 기단	3×1, 덧댄부억	공방	후대건물지
11	건물지⑪	석렬, 군집할석	·	회랑	·
12	담장	석렬	188m(상부확인)	담장	·
13	연지	석렬, 입수구	1,860×890cm(추)	연지	·
14	미상유구	호형(弧形)석렬	1,260cm	미상	·
15	수로 2개소	벽석 및 바닥석	잔존623cm, 340cm	수로	·

아래라고 했다. 두 기록이 서로 다른 부분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 오기(誤記)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낙서재의 남쪽은 소은병이 위치하고 또한 경사가 심한 지형이어서 건축물이 들어서기에 어려운 여건이다. 따라서 무민당의 위치는 낙서재의 아래쪽인 북쪽으로 볼 수 있다.¹⁶⁾ 또한 후술하게 될 발굴조사의 결과에서 아래쪽에 연지가 확인됨으로써 『보길도지』의 기록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다.

발굴조사에서는 건물지 11개와 담장, 수로 연지 등이 확인되었다.



<그림 6> 낙서재 일원 발굴조사 전경

공반유물은 백자와 기와가 주종을 이루고 백자는 반상기가 대부분이며 이외에도 제기, 도가니 등 비교적 다양하다. 유물의 편년은 17세기중반에서 18세기 후반까지이며 이를 통해 볼 때 낙서재일원도 비교적 장기간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11개 건물지의 규모와 용도를 살펴보면 먼저 건물지①은 초석과 기단 등 세부유구가 가장 잘 남아있고 초석사이를 잇는 석렬이 확인되며 안쪽에서는 난방시설이 없는 점으로 미

16) 필자는 기존연구(김영필, 「완도 보길도 윤선도 유적의 공간구성」 『완도 보길도 윤선도유적Ⅱ』, 전남문화재단연구원, 2006.)에서 소은병의 뒤쪽(남쪽)을 무민당 위치로 추정할 바 있으나 발굴조사 결과와 추가로 확인한 문헌기록을 다시 고찰해 본 결과 무민당의 위치를 낙서재의 아래(북쪽)로 수정하고자 한다.



<그림 7> 낙서재 일원 발굴조사 유구 배치도

루어 바닥은 마루구조를 갖는 제각이나 규모가 큰 가묘로 추정되고 건물지②는 ①의 부속 건축물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건물지③과 ⑤는 고산기거당시 혹은 시간이 격차가 크지 않

은 시점에서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기록에는 취사나 수장공간 등 부속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2개의 건물지는 소은병을 중심으로 구성된 낙서재 영역에서 다소 주변

18 논문

적인 위치인 데다가 특히 건물지③은 내부에서 소토와 석재가 불에 적열되었던 유구상의 흔적이 확인되는 점, 건물지⑤의 경우 정면 4칸, 측면 2칸의 평면규모와 측면 적심의 배치 간격이 290cm와 269cm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간살의 구성이 생활용도로는 보기 어렵고 창고 용도의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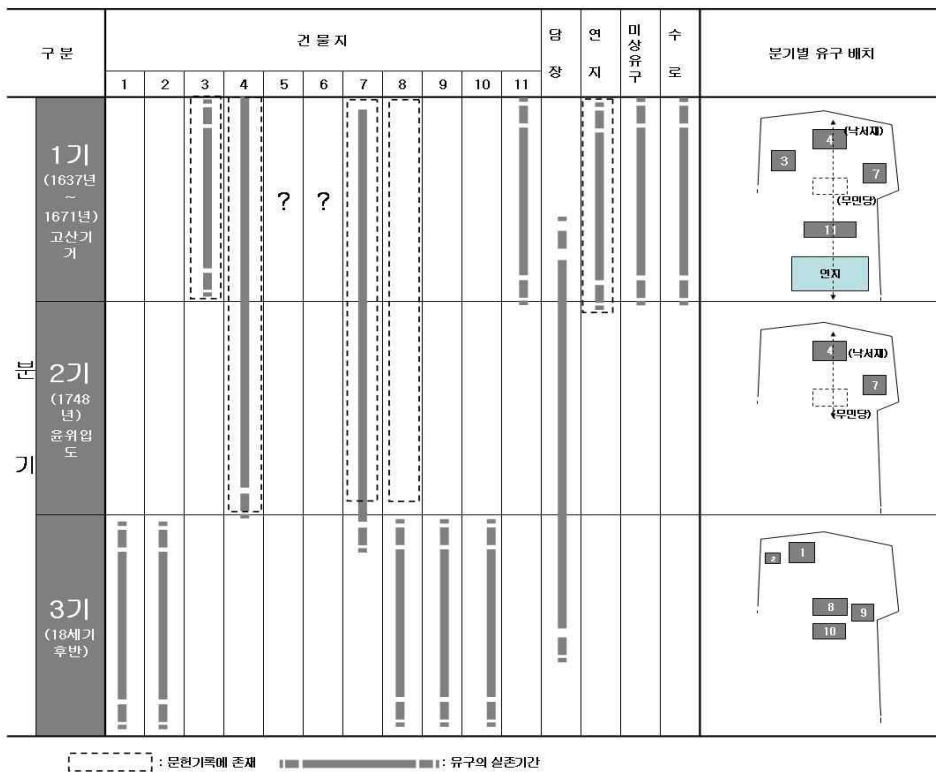
이외에도 건물지③에서는 16세기로 편년되는 자기편이 출토되었다. 건물지④는 소은병과 19.6m로 너무 멀고 주변과 내부에서 적심시설이 확인되는 점에서 후대에 들어선 건물지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 건물지⑥, ⑦은 잔존유구가 석렬이나 소수의 초석이어서 구체적인 건축물의 형태와 용도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건물지⑧,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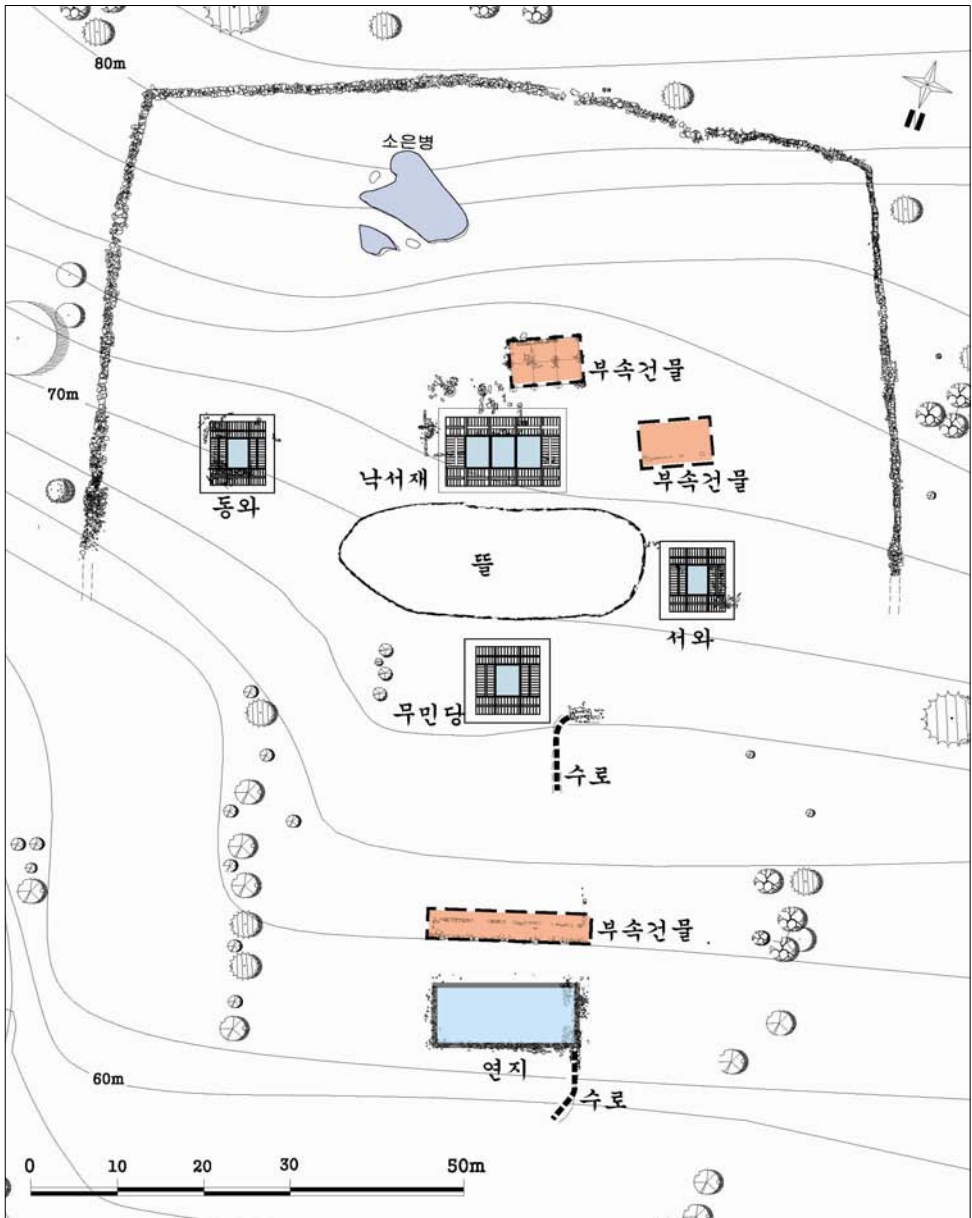
는 낙서채 일원에서 건축물이 들어서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그래서 건물지 관련 유구들이 중복되어 확인되었던 곳이다. 그러나 건물지⑩은 3칸 규모로 비교적 작은 건물지이며 어칸의 간살이 13.5尺으로 협칸에 비해 월등히 큰 점, 불을 사용하는 면적이 크고, 공반된 유물 중 도가니가 확인된 점 등을 통해 불 때 공방 용도로 추정된다.

건물지⑪은 가로 1,650cm, 세로 310cm의 규모이며 용도는 회랑처럼 기다란 평면형태의 건축물로 추정된다. 한편 담장은 돌만을 사용한 강담형식으로 북서쪽이 유실되었으며 안쪽으로는 후대에 축조한 구불구불한 곡선형태의 담장이 들어서 있다. 또한 중앙에는 방형에 가까운 담장이 있는데 후대에 축조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발굴조사의 결과는 문헌기록의



<그림 8> 낙서채 일원 건축물의 분기별 변화



<그림 9> 낙서재 일원 배치 복원도

묘사내용 중 연지가 정확히 일치하고 일부 건물지는 규모는 다르지만 당시의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소은병 아래인 건물지④가 위치한 곳이 낙서재의 터가 되겠고 건물지⑧ 부분이 무민당이 있었던 자리로 판단된다. 즉 연지와 소은병을 잇는 중심축 상에 핵심건

축물인 낙서재와 무민당이 놓이게 되는 배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구성과 배치는 주변 담장이 감싸고 있는 영역의 중심이 되고 또한 두 건물지가 입지한 곳이 격자봉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리는 능선의 끝자락이 되어 지형과 조망을 동시에 고려한 입지선정으로 볼

20 논문

수 있다. 이외에 건물지③, ⑦은 각각 동와, 서와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건물지들의 변화상을 운용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개별건축물의 건립과 멸실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간을 나누어 비교적 큰 범주에서 건축군의 변화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기의 설정은 1기(1637년~1671년) 고산입도~고산사망, 2기(1748년) 윤위의 보길도 기행당시, 3기 18세기 후반이후이다. <그림 8> 1기에는 건물지③, ④, ⑦, ⑩과 무민당, 연지, 수로가 있던 시기로 전술한 바와 같이 직선축 배치원리 속에서 공간이 구성되던 시기로 판단된다. 또한 가장 많은 건축물들이 있던 시기이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수로가 남에서 북쪽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수로를 통해 연지에 물이 입수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연지의 물이 넘칠 때에도 수로를 통해 곡수당 쪽으로 흐르게 된다. 결국 낙서재 일원의 공간구성에서도 물을 끌어 들이는 별서건축의 조영수법이 동일하게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다. 2기에는 건물지④, ⑦과 무민당이 있던 시기로 전 1기에 비해 규모가 축소되었다. 연지와 건물지⑩을 비롯해 동와까지도 멸실되었다.

3기는 건물지①, ②, ⑧, ⑨, ⑩이 있던 시기이다. 공반유물인 자기 및 기와류가 1~2기에 비해 후대이고 건축물의 용도가 제각, 공방 등으로 추정되어 고산유적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건물지⑤, ⑥은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 시기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중심영역에서 벗어나 있고 용도가 수장과 관련된 것이어서 가장 전성기를 이루던 1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고산 기거당시의 추정 배치복원도 <그림 9>를 제시하면서 낙서재 일원의 공간구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3-4. 동천석실 일원

동천석실은 낙서재의 맞은편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전남지방 별서건축의 입지양상이 일반적으로 산기슭인 점과 비교해 보면 특수

[표 7] 기록에 묘사된 동천석실 일원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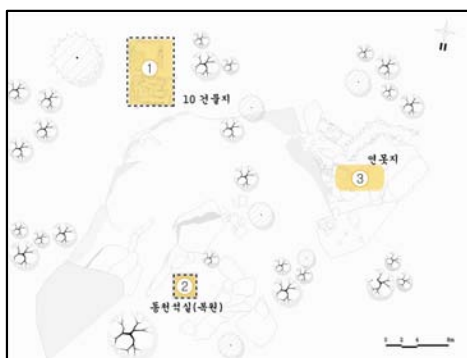
출처	조영요소	원 문	내 용	비 고
보길도지	동천석실	· 遂構一間屋於石函中 命曰洞天石室	· 이곳 석함속에 한 간 집을 짓고 명명하기를 ‘동천석실’이라 했다.	
	희황교 (羲皇橋)	· 其下有石橋 卽文集所謂羲皇橋也	· 그 밑에는 석교가 있으니, 곧 문집에서 말하는 희황교 이다.	
고산유고	희황교	· 自註。在石室第二石門外假仙臺之北。橋北橋南着小欄...	· 주)석실 제2 석문밖 언선대북쪽에 있다. 다리 북쪽과 다리 남쪽에 작은 난간 보이고...	난간
	석실(石室)	· 石室, ...那有六重門 庭泉臺沼備	· 석실...어찌 여섯 겹문이 있을까마는 뜰과 샘, 대와 못은 갖추었다네	
부용동팔경	석실	· 晚風吹海引香烟 散入嵯峨石室邊..	· 저녁 바람이 바다에 불어 향기로운 연기가 일터니 높이 흩어져 석실 근처로 들어간다.	
	부익	· 古竈 一甌茶沸掬清川 · 石室茶廚起夕烟	· 오랜된 부익으로 들어가니. 한 사발 차를 끓이려 맑은 물을 떠온다. · 석실의 차 부뚜막에 저녁연기 피어오르고...	
	희황교	· 羲皇橋下綠何鑽	· 희황교 아래서 푸른연기 어떻게 모아...	

[표 8]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동천석실 일원 유구

순번	유구명	잔존유구	규모	용도 (추정)	비고
1	건물지①	축대, 고막이석렬, 구들시설, 벽체	2×1칸	.	전남문화재연구원 3차조사
2	건물지②	초석	1×1칸	정자	국립문화재연구소/복원
3	연못지	연못지 3개소, 축대 2개소, 계단 1개소, 회황교(자연암반)	16.25×16m	연지	.

한 것이다.

동천석실은 기록에 의하면 1×1칸 규모로 조성 시기는 낙서재를 건립한 직후이다. 그리고 1990년 문헌기록에 부합하는 발굴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후 1칸 건물지는 동일한 규모로 복원되었으며 추가로 연지가 확인되었으며 전남문화재연구원의 3차 조사에서도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문헌기록과 발굴조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표 7>, <표 8> 과 같고 유구의 발굴현황도는 <그림 10> 과 같다.



<그림 10> 동천석실 일원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특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①은 동천석실의 공간구성을 재조명해야 할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건물지①은 초석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거리로 보아 정면 2칸 측면 각 1칸 규모이다. 특이한 점은 1동의 건축물을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한 점, 또한 구들과 아궁이의 높이차가 280cm인 점, 온돌 고래부의 두둑이 곡선과 직선형의 혼합형이고 고래밑면의 기울기

가 없이 평지에 가까운 점 등인데 이러한 건축형식은 전남지방에서는 확인된 예가 없다.

일반적으로 경사가 심한 지형에 건축물을 축조할 때 대지를 평지로 조성하며, 보통의 경우 삭토를 하거나 혹은 성토를 하여 터를 닦고 기단을 축조한다. 다음 온돌을 놓을 경우에는 아궁이 바닥면은 기단과 지면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동천석실 건물지①은 축조 시 대지를 2단으로 조성하였으며 하단에서 아궁이가 확인되고 상단에서 구들장과 고래 등 온돌시설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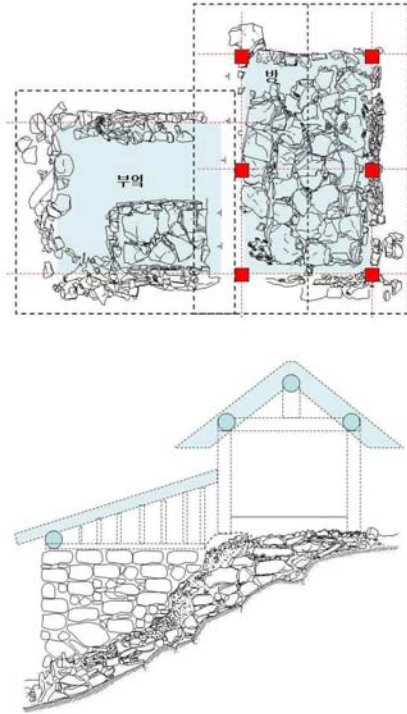
이 형식에 대해서 선행연구에서는 “高設式 濫突집”으로 명명한 바 있다.¹⁷⁾ 이와 같은 고설식 온돌집은 한국건축의 일반성에서 벗어난 것으로 기술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설식 온돌집의 기능은 주로 정자나 루에 성격을 지닌 건축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유교건축과 관아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고설식 온돌집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분포지역은 크게 강원, 경남, 경북, 충

17) 고설식 온돌집이란 용어는 ‘濫突이 들어 올려진 高床式 建物’, 또는 ‘濫突이 가설된 高床式 建物’, ‘지표 위의 일정 높이에서 온돌구조와 마루구조가 결합된 建物’, ‘방바닥을 地表에서 높이 올려 온돌을 들인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존에 ‘고상식’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 高床式이란 마루바닥에 적절하므로 본고에서는 고설식 온돌집이란 용어를 따르도록 한다. 柳根柱, 金慶彪, 고설식 온돌집의 구성형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9호 통권107, 1997. 柳根柱, 金慶彪, 고설식 온돌집의 조영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11호 통권109호, 1997

22 논문

북으로 보고 있으며 대부분 경북지역에 밀집되어 나타난다. 경북지역에서는 정자에서 많고 다른 지역에서는 향교 명륜당과 같은 유교건축에서 비교적 많은 수가 확인되고 있다.¹⁸⁾ 지금까지 호남지역에서는 남원 광한루를 제외하고 확인된 사례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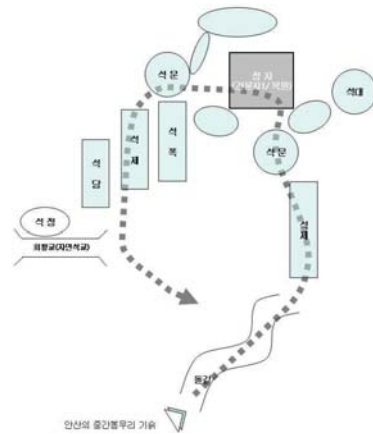
<그림 11> 건물지① 상부구조 추정

다음은 건물지①의 기능에 관한 것이다. 확인된 유구를 통해 상단에는 2칸 규모의 온돌방이고 하단은 부엌이다. 피상적으로 부엌이 딸린 건축물로 볼 수도 있으나 『부용동팔경』에 기록된 “오래된 부엌으로 들어가니. 한 사발 차를 끓이려 맑은 물을 떠온다.” “석실의 차 부뚜막에 저녁연기 피어오르고...” 라는 문구에서는 차를 끓이는 부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건물지①의 부엌이 이와 같은 용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건물지①은 하단인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상단인 온돌방에서는 차를 마시는 건축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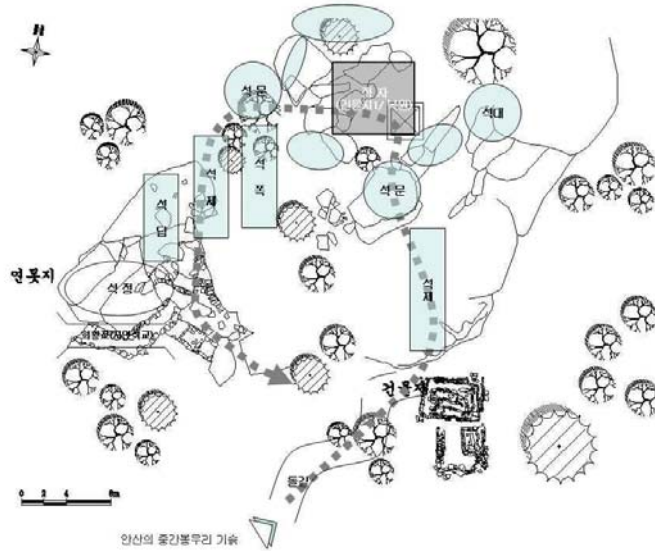
동천석실의 공간구성은 2개의 건축물과 1개의 연지가 자연물과 어우러진 것으로 관조적 공간인 연지와 낙서재 쪽으로 조망 위주인 정자(건물지②) 그리고 차를 준비하고 마시는 건축물(건물지①)이 배치상에서 3각형을 이룬다. 그러나 이곳의 지형이 경사가 심하고 잡목이 우거져 상호간 이동경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다만 『보길도지』에 묘사된 내용을 토대로 추론이 가능하다.

... 안산의 중간 봉우리 기슭에서 수십 보 올라가면 돌길이 구불구불 나 있고, 산 허리에 이르면 갑자기 층계가 분명한 석제가 있는데, 마치 사람이 축조한 것과 같다. 이 석제를 따라 올라가면 석문이 있다. 석문은 양쪽에 석주가 마주서 있고, 그 밑에는 깎은 듯한 괴석이 문지방과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같은 모양이 겹겹이 있다. 그 안에는 두어 칸 되는 반석이 있다. 가운데는 오목하고 동이와도 같은 돌이 놓여 있으며, 겉은 깎은 듯하다. 공은 이곳을 몹시 사랑하여 부용동의 제일의 절승이라 하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수시로 찾아와 놀았다.



<그림 12> 윤위의 동천석실 이동경로

18) 柳根柱, 金慶彪, 앞의 글, p. 29, 1997(A)



<그림 13> 문헌기록과 발굴조사자료의 부합

이곳에 앉으면 온 골짜기가 내려다보이고, 격자봉과는 평면으로 마주하게 되며, 낙서재 건물이 환하게 눈앞에 펼쳐진다. 대체로 사건이 있으면 무민당과 기(旗)를 들어 서로 호응하기도 했다. 공은 때로는 암석을 더위잡고 산행하기도 했는데, 발걸음이 매우 경쾌하여 나이가 젊은 건각들도 따라가지 못했다 한다. 석실 오른쪽에는 석대가 있다. 높이는 한길 남짓하고, 넓이는 두어 사람이 앉을만하다.

석대 밑에는 도 석문과 석제가 있고 석문 밖으로는 벼랑처럼 끊어진 매우 위험한 석폭이 있다. 등녕쿨을 더위잡고 내려오면 맑게 흐르는 샘물은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단풍나무, 소나무 그늘이 덮여 있는 밑에는 검푸른 이끼가 돋아 있으며, 물이 떨어지면서 석담을 이루고 있다. 즉,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함과 같다. 석담가에는 석정이 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에는 장노가 죄를 저지르고 속죄하기 위해 이 우물을 봤다 한다. 한 간쯤 되는 석정에는 티없이 맑은 물이 넘쳐흐른다. 그 밑에는 석교가 있으니, 곧 문집에서 말하는 희황교 이다.¹⁹⁾

정리해 보면 안산의 중간봉우리 기슭에서 출발하여 돌길→석제→석문→정지→석문→석재→희황교로 이어지는 동선이다. 그러나 건물지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윤위가 동천석실에 왔을 때에는 이미 멸실된 이후로 생각된다.

윤위의 이동 동선을 발굴조사 현황도와 겹쳐보면 <그림 13> 과 같이 나타나는데 상당부분 일치된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윤선도 기거 당시 동천석실의 공간구성은 3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동선은 시작점이 차를 마시는 건축물(건물지②)이 되며 여기에서 연못지와 건물지①로

19) 蓋自案峰中巒之足上數十步 石逕灣迴 至中腰 忽有石梯 層級分明 如人築成然 綠梯而上 有石門 兩柱對立 基下怪剝削 自作闕限 如此兩重 中有石盤 方數間 中凹外截 正中有石如盆 公絕愛之 以為芙蓉第一之勝 仍架屋其上 時常來遊 座此亦俯臨全壑 平對格紫 樂書軒房 瞭然羅限 凡有事 與無悶舉旗相應 有時攀行岩石 步履甚輕 年少健步者莫及焉 石室之右 有石臺 高丈餘 可坐數人 臺下又有石門石梯 石門之外 有石瀑 斗絕甚險 攀蘿而下 飛泉清潔 琮瑋作樂 楓松蔭覆 苔蘚紺翠 水落爲石潭 天昨一函 潭邊有石正 舊傳 有匠奴犯罪 鑿此以贖云 并可一問許水激激無塵 其下有石橋 卽文集所謂義皇橋也

24 논문

연결된다. 물론 연못지와 건물지①은 서로 오고갈 수 있다.

결국 동천석실에 적용된 건축개념은 자연에 순응하고자 하는 성리학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연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최소한의 시설물을 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차를 마시고 연못과 부용동 일대를 관조하며 독립성이 확보된 정적공간으로 이용하였을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완도 보길윤선도 유적에 대한 것으로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유구와 문헌기록과 비교하여 유구의 성격과 유적의 건축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곡수당일원에서는 문헌에서 언급된 곡수당과 서재 건물지 등을 비롯해 다리와 연지가 확인되었다. 공간구성은 계곡에서 흐르는 냇물을 이용하여 영역을 셋으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는 건축물을 비롯한 연지 등을 조성하였다. 각 영역들은 홍교, 유의교, 일삼교를 통해 연결되고 의도적으로 길게 구성시킨 동선은 물을 모태로 만들어진 계곡과 상·하연지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연출 수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낙서재일원은 11개의 건물지와 연지, 담장 등이 확인되었다. 이들 유구는 3시기로 변화상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이 중 1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윤선도 기거당시가 되는데 건물지 ③, ④, ⑦, ⑪과 무민당, 연지, 수로가 직선축 배치원리 속에서 구성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남에서 북쪽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수로에 의해서 연지에 물이 입수되었고 또한 곡수당 쪽으로 흐르게 된다. 결국 낙서재 일원

의 공간구성에서도 물을 끌어 들이는 별서건축의 조영수법이 동일하게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산인 격자봉의 끝자락에 입지하고 중심축을 사용하는 배치는 곡수당과는 차이를 보이는 구조이다. 고산 사후 낙서재는 건축물들이 점차 멸실되어 윤위가 입도했을 당시에는 규모가 축소되어 무민당과 낙서재 서와만 존재했다.

셋째, 동천석실의 공간구성은 2개의 건축물과 1개의 연지가 자연물과 어우러진 것으로 관조적 공간인 연지와 낙서재 쪽으로 조망위주인 정자(건물지②) 그리고 차를 준비하고 마시는 건축물(건물지①)이 배치상에서 3각형을 이룬다. 동선은 외부에서 접근할 때 차를 마시는 건축물(건물지①)을 처음 마주하게 되고 여기에서 연못지와 건물지②로 연결되고 또한 연못지와 건물지②도 서로 오고갈 수 있는 순환형 동선이다.

특별히 건물지①은 1동의 건물을 상단과 하단으로 나누고 하단에 아궁이, 상단에 구들을 두었으며 고래와 두둑이 곡선과 직선이 혼합되어 있다. 아울러 용도에서도 차(茶)와 관련된 것이어서 전통건축분야에서는 특수한 건축물로 생각되며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해 보면 보길도는 고산이 세연정, 곡수당, 낙서재, 동천석실이라는 공간을 구성하고 건축물은 물론 심지어 자연물까지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건축물과 자연물은 격식과 위상의 틀 속에서 질서화 시켰으며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연관이 있는 유기적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윤선도는 이러한 환경을 기반으로 자연과 합일하고자 하는 성리학적 이념을 추구함과 동시에 한직과 은둔, 유배로 점철된 질곡이 많은 환경생 속에서 그가 찾았자 했던 이상향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김선우, 한국 주거난방의 사적고찰, 대한 건축학회지, 23권 90호, 1979
2. 김동욱, 「담양 면양정의 건축형태」, 『건축역사학회』, 2000
3. 문화재관리국, 『보길도 윤고산유적』, 1985
4. 문영오, 『국어국문학』, 「고산문학의 풍수사상 현장화 양태 고구」, 1998
5.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 문예출판사, 1992
6. 전남문화재단연구원, 『완도 보길도 윤선도 유적』, 2003
7. 전남문화재단연구원, 『완도 보길도 윤선도 유적 II』, 2006
8. 전남문화재단연구원, 『완도 보길도 윤선도 유적 III』, 2009
9. 정운채, 『윤선도』-연근지정과 이념의 시세계-, 건국대학교출판부, 1995
10. 정재훈, 『보길도 부용동 원림』, 열화당, 1990
11.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12. 천득염, 『한국의 명원 소재원』, 발언, 1999
13. 한국전통건축연구회, 『한국건축사』, 도서출판 서우, 2002
14. 신종일, 「보길도 별서건축을 경영한 고산 윤선도의 건축관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004
15.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유적 정비 및 개발 기본 계획』, 명지대 한국건축문화연구소, 1999
16. 이안진, 『고산윤선도의 조경관과 정원의 조성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1995
17. 이재근, 『조선시대 별서정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2
18. 이창업·강영환, 「고려시대 별서건축의 조영수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권 11호9(통권 193호), 2004
19. 유우선, 「보길도의 고산유적과 어부사시사의 배경시론」, 『호남문화연구』, 1977
20. 정동오, 「고산 윤선도의 별서생활과 부용동 원림의 지원에 대한 고찰」, 『고산연구』, 1987
21. 최은창·홍광균, 「보길도 부용동 세연정 정원의 공간구성 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994
22. 윤일이, 「晦齋 李彦迪의 建築觀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 11호(통권169호)』, 2002
23. 박준규, 「孤山의 〈山中新曲〉과 水晶洞」, 『국어국문학』 100, 국어국문학회, 1988
24. 이형대 · 이상원 · 이성호 · 박종우, 『국역 고산유고』 1판, 소명출판, 2004

접수(2009. 10. 15)

수정(1차: 2010. 1. 18)

게재확정(2010. 1. 24)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s of the Yun Seon Do's Relics at Bogildo

Kim, Young Pil

(The Jeonnam Cultural Property Research Center, Team Manager, Ph.D)

Abstract

This study is on Yun Seon Do's site located at Bogildo, Wando-gun, Jeonnam, compares the relics found through excavation to literature records and examines the character of relics and architectural features of the sit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ridge and pond including Goksudang and Seojae mentioned in related literatures were found around Goksudang. In the spatial composition, the area was divided into three using the stream from the valley and pond including buildings was built at each area. Each area was connected through Honggyo, Yueuigyo, and Ilsamgyo bridges and intentionally lengthened movement was considered as the space production technique to see the valley, and upper and lower pond.

Second, 11 building relics, pond and fence were confirmed around Nakseojae. The transformative process of these relics could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1st of these period was when Yun Seon Do lived there and Mumindang, pond and waterway were arranged as straight axis

Third, Dongcheonseoksil consisted of building relics ① for preparing for and drinking tea and pavilion (building relics②) and pond, and these were static with nature and used as contemplative space for viewing.

keywords : Yun Seon Do, Bogildo, Goksudang, Nakseojae, Building relic
